

晦堂 張錫英의 滿洲·露領 기행시의 시적 구현 양상

-『遼左紀行』을 중심으로-

한 길 로*

- I. 서론
- II. 국내에서의 서정: 이역으로 향하는 遺民의 悔恨과 鬱悶
- III. 만주·노령 체험의 시적 구현 양상과 詩情
 - 1. ‘同志’들과의 수창시를 통한 決意와 志氣의 표출
 - 2. 목도되는 이산의 실정과 倍感되는 客愁
 - 3. 移居地 선정에 대한 모색과 고뇌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승희·곽종석 함께 한주 이진상의 학맥을 계승하는 동시에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근대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회당 장석영의 해외 기행시에 주목하는 논문이다. 그는 국망의 현실을 극복하고 유도의 쇠퇴를 막기 위해 해외 이주를 모색했던 유림이었다. 그는 북만주 蜜山에 머물던 한계 이승희와 더불어 해외 한인공동체를 논의할 계획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대로 향했고 그곳을 주람했다. 약 100일간 15,000리에 걸친 여정이었다. 그의 『요좌기행』은 중화에 대한 동경에서 벗어나, 직접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 philosmind@naver.com

중국으로 건너가 중화의 재현과 고국의 독립 및 이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던 1910년대 한국 유림의 현실인식과 그 내면을 응변하고 있다. 그의 기행시는 식민지가 되어 버린 고국을 뒤로한 채, ‘떠남을 위한 기행’을 시작한 遺民의 憂愁로 시작된다. 중국에 도착한 그는 한·중 ‘동지’들을 만나 잠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60대 老儒의 몸으로 북만주 및 노령과 같은 낯선 이역을 기행하는 과정은 唐 玄奘과 비견된다고 할 만큼 고된 길이었다. 여기에 이역을 전전하며 流民이 되어버린 한인들이 겪고 있던 삶의 실상이 목도되면서, 비감과 통한 그리고 客愁의 서정은 배가 되어 온전히 시에 담기게 된다. 동시에 시에는 移居地에 대한 모색과 고뇌의 감정도 점차 고조되고 확대되어 나타났다. 요컨대 그의 기행시는 근대기 유림이 실행한 독립운동의 일면과 함께 해외 이거를 모색하던 당대 유림의 내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중’과 ‘중·러’의 경계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던 한인 이민자와 난민을 바라보며 나타난 다양한 내적 갈등과 자기 정체성의 모색, 또 고국에 대한 깊은 향수까지를 모두 담고 있었다. 즉 그의 작품은 근대기 한문학의 특징적 국면들을 대단히 잘 반영하고 있다.

◆ 주제어

장석영, 『요좌기행』, 『회당집』, 만주·노령, 기행시.

I. 서론

과거 조선의 문인들에게 가장 주목되는 해외는 단연 ‘중국’으로 이곳은 단순한 이역 이상의 의미를 갖는 특수한 공간이었다. 湛軒 洪大容이 중국 여행에 대해 ‘과거에 급제한 것과 비견’된다고 전할 만큼, 중국을 향한 조선 문인들의 기대와 선망은 상당히 지대했다.¹⁾ 하지만 19세기 이후 전개된 시대적 변화는 다수의 국내 유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 1910년 대한제국의 강제병합 그리고 1912년 오랑캐라 여겼던 이른바 ‘大清제국’의 붕괴가 더해진 당대의 상황은 많은 이들의 중국행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²⁾

이제 중국 기행은 단순히 ‘孔孟과 程朱’가 태어나고 강학을 했던 ‘聖鄉’, 혹은 문명의 宗主를 직접 체험하는 것에 머물 수 없었다. 특히 유림들에게 중국은 견문이나 기행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민족의 압제를 피하고 ‘중화’의 가치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가야 할 생존의 터전으로 변모한 것이다.³⁾ 만주 일대는 이미 수많은 한인들이 삶을 영위하고 또 집결하고 있던 ‘이역 아닌 이역’의 땅이 되었다. 나아가 한인들의 발길이 ‘극동 러시아’ 일대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곳을 찾는 유림들의 출입도 늘어났다. 즉 이 시기 이후 그들에게 중국, 특히 만주 일대와 露嶺은 보다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旅軒 張顯光의 9대손으로 이승희 · 곽중석 함께 한주 이진상의 학맥을 계승하는 동시에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근대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晦堂 張錫英(1851~1926) 역시 1912년 중국과 노령으로 향했다.⁴⁾

1) 김태준, 『여행과 한국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117쪽.

2) 다수의 국내 유림들에게 당시의 상황은 “중화를 오랑캐로 만들고 인류를 금수로 만든, 개벽 이래 없던 대변화”로 인지되기도 했다. (崔益鉉, 『勉菴集』卷4, <宣諭大員命下後, 陳懷待罪疏>, “使中華爲夷狄; 人類爲禽獸, 此開闢以來, 所未有之大變也.”)

3) 즉 이 시기의 문인 사대부들의 중국 이주는 앞선 시기의 ‘관념적 尊華’에서 벗어나 직접적 실천을 통해 “반드시 나라의 원수를 갚고 華脈을 지키기” 위한 ‘유교적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柳麟錫, 『毅菴集』卷4, <因召命入疆至楚山, 陳情待罪疏國報讎>, “期以必報國讎, 必保華脈.”)

그 또한 해외 이주를 피하며, 국망의 현실을 극복하고 유도의 쇠퇴를 온몸으로 막아보려던 유림이었다. 퇴계의 학설을 계승한 한주의 ‘心卽理說’을 계승하고 수호하는데 진력하면서도 국채보상운동과 파리장서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였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함께 동문수학했던 여타의 주요 인물들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⁵⁾ 특히 해외체험 과정에서 창작된 기행시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물론 1912년 압록강을 건넌 뒤 중국 安東에서부터 蜜山, 이어서 연해주 일대까지의 여행을 기록한 『遼左紀行』에 주목하며 그 체험의 양상과 특성을 궁구한 연구가 있어 그 대체가 진술된 바 있다.⁶⁾ 하지만 한국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중국 동북 일대 및 노령까지 둘러본 그의 정서와 소회가 담긴 시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당대 유림의 현실인식과 내면세계를 조명하려는 시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⁷⁾

그의 기행시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
- 4) 이 시기 한주학을 계승한 주요 인물은 이른바 ‘洲門八賢’으로 통칭된다. 이는 한주 이진상의 대표적인 여덟 제자를 흔히 일컫는 개념으로 后山 許愈(1833~1904), 侏宇 郭鍾錫(1846~1919), 紫東 李正模(1846~1875), 弘窩 李斗勳(1856~1918), 膠宇 尹胄夏(1846~1906), 勿川 金鎮祐(1845~1908), 晦堂 張錫英(1851~1929), 韓溪 李承熙(1847~1916)를 이른다. (홍원식(외 공저), 『근대 시기 낙중학, 주문팔현과 한주학파의 전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참조)
- 5) 황지원, 「회당 장석영의 철학과 한주학 계승」,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76쪽.
- 6) 윤병석, 「요좌기행」·「요좌기행 해설」, 『사학지』8, 단국사학회, 1974, 서동일, 「1910년대 한중 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7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3; 「1910년 전반기 장석영의 외부세계 경험과 유교인식」, 『한국인물사연구』22,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정우락 「『요좌기행』을 통해 본 장석영의 만주체험과 그의 의의」,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7)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정우락(2017)의 논문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그의 한문학 작품에 관한 연구는 크게 그의 ‘시 세계의 구도와 면모 및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특성’과 함께 ‘序文에 나타난 산문의 문학적 성취’ 등에 관한 논문 등이 있다. (이택동, 「회당 장석영론」,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최은주, 「회당 장석영의 삶의 궤적에 따른 한시 창작 양상의 특징」,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김윤조, 「회당 장석영 산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상정된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그의 시는 일제에 대한 저항을 직접 전개하고자 해외로 떠난 당대 유림들의 내면과 현지의 상황을 담고 있어 유림계 독립운동의 일면과 이민사의 일부를 살필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⁸⁾ 동시에 그의 기행시의 배경이 근대기 유림의 주요 기행 장소였던 서간도·북경·곡부 일대가 아닌, 현재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및 연해주’ 일대였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된다.⁹⁾ 기행 공간의 변화는 곧 한국 유림의 대외인식 및 한문학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 북방 오랑캐가 사는 흑룡강성 일대와 소위 ‘매우 난폭하고 사나운 大鼻獠子’¹⁰⁾가 사는 곳으로 인지된 러시아까지를 ‘직접’ 체험한 그의 작품들은 기존에 발견되기 어려웠던 새로운 국면이었다. 요컨대 본고는 그의 기행시를 통해 장식영 문학 연구를 확장함과 동시에, 한문으로 작성된 근대기 기행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조명함으로써 이 시기 유림의 내면과 한시의 실정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국내에서의 서정: 이역으로 향하는 遺民의 悔恨과 鬱悶

그는 러시아와의 경계에 있던 중국 蜜山에 머물던 한계 이승희와 더불어 중국 내 한인공동체 구축을 논의하고자 중국으로 향했다. 1912년 1월 19일 왜관 石田津을 출발하여 귀향한 4월 28일까지, 약 100일간 15,000리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¹¹⁾ 이때 그가 직접 쓴 기행시는 모두

8) 윤병석, 「요좌기행」·「요좌기행 해설」, 『사학지』8, 단국사학회, 1974, 161쪽.

9) 1910년대 초 유림계의 중국 기행은, 크게 移居의 모색과 孔教운동과 연관되며 주로 서간도와 북경 그리고 곡부에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헌 조병택의 <西征日錄>(『一軒集』卷5), 물와 김상옥의 <中州記行>(『勿窩集』卷1), 서천 조정규의 <北征日錄>(『西川集』卷3), 한계 이승희의 <西遊錄>(『漢溪遺稿』卷7), 예대회의 <燕城紀行>(『伊山文集』卷5) 등이 있다. 더불어 서간도를 지나 북경과 곡부를 거쳐 절강 지역 및 홍콩까지 기행한 이병현의 『中華遊記』도 주목된다.

10) 洪大容, 『湛軒書外集』卷7, <燕記>藩夷殊俗, “大鼻獠子者, 卽鄂羅斯, 蒙古之別種, 以其人皆鼻大凶獍, 我國號之以此.”

16제 28수로 『遼左紀行』이라는 별책과 더불어 문집 『晦堂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시는 기존의 전통과 유사하게 기행 여정을 따라 작성되었는데 장소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국내에서의 시가 5제 8수, 국외에서의 시가 11제 20수였다. 국내는 고향에서 출발하여 서울-개성-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의 여정이었다. 국외는 압록강을 지나 安東(현 단동) - 奉天(현 심양)을 거쳐 長春 · 흑룡강성 하얼빈 및 인근의 管城¹²⁾과 같은 현재 동북 삼성일대, 또한 러시아 영토인 江東¹³⁾ · ‘宋皇嶺(현재 우수리스크)¹⁴⁾ · 上新峙¹⁵⁾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다.¹⁶⁾

11) 정우락, 앞의 논문, 209쪽.

12)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遼左紀行』에 의하면 이곳은 장춘과 하얼빈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장춘에서 기차를 타고 이곳에서 러시아 기차로 갈아탄 뒤 하얼빈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遼左紀行』, 「二月十二日~十四日」, 144쪽. 참고로 『遼左紀行』의 원문은 부산대소장본을 옮긴 윤병석의 논문을 기초로 하였음을 밝힌다. 이하 『遼左紀行』 인용 시 서명 생략.)

13) 정확한 위치는 불명이나, 아래에서 언급할 상신치와 송황령 인근으로 추정된다. (李承熙, 『韓溪遺稿』卷1, <俄國江東上新峙逢重九> 참조)

14) 송황령은 지금의 우수리스크 일대로 이곳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행 철도의 연결지이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가량 떨어져 있다. 발해의 성터가 남아있는 이곳은 청나라 때 雙城子라고 불렸고, 송나라에서는 황제가 구금되었던 곳이라 하여 宋皇嶺 또는 宋王嶺으로 불렸다. 1866년에 마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한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 곳으로, 보제 이상설이 서거한 지역이기도 하다

15) 현재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이곳은 이승희와 장석영이 극적으로 상봉한 장소인 新峙의 인근으로 추정되며, 이승희는 1911년 당시 이곳을 러시아 영토로 표기하였다. 또한 이승희가 청나라의 치발령을 피해 노령인 상신치와 해삼위를 왕래하다 다시 밀산 한흥동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또 李基仁은 『蜜山追憶記』에서 이곳이 한흥동에서 15리 거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상신치는 당시 중·러의 경계였던 興凱湖의 남부로, 러시아 영토에 속하는 접경지대로 판단된다. (<張舜華北遊吉林, 訪我于上新峙, 握手下淚, 歡叙數句, 其還, 餞于紅土河, 悵驢一律> (『韓溪遺稿』卷1), <年譜(辛亥)> (『韓溪遺稿』卷7), “(注)袁世凱爲大總統, 改革舊政, 先行薙髮之令, 以變清制而從歐俗也, 先生不安居, 或避俄領之上新峙, 或往來於海蔘威.”)

16) 다음은 수록 시 목록이다. 참고로 정확한 시제는 『회당집』에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참고했고, ※은 『遼左紀行』에만 수록된 것임을 의미한다.

‘식민’이라는 미증유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북만주와 연해주라는 미지의 세계로 기행을 떠나게 된 당시 그의 시에 먼저 포착된 서정은 다름 아닌, 망국의 현실을 다시금 체감하며 나타난 깊은 ‘회한과 탄식’의 면모였다. 그의 기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떠남을 위한 기행’이었기에 첫 해외체험에 대한 기대의 감정은 표출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더욱이 한양은 이제 ‘옛’ 도성이 되어 버렸고 지엄한 왕과 왕족의 권위를 상징했던 궁궐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즉 그곳은 화려한 방초들이爛漫이 펼쳐지고 기이한 온갖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놀이터이자 구경거리로 전락했으며 더욱이 그곳에는 총칼을 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¹⁷⁾ 서울을 도착하여 일면 화려해보이나 그 내면은 초라하게 변해버린 옛 도성의 면모를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얼마 후, 일본 병졸 수백이 각기 병기를 잡고 말 위에서 고취하며 음악을 일으켰고 또 일본 남녀가 있었는데 본국의 남녀 학도로 누천의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대오를 결성하여 다가왔다. 또 관인 수백이 일본 옷에 훈장을 차고 차에 탄 채 서로 계속 이어 왔다. 시장 사람들이 가리키며 ‘나라를 팔아먹은 적신 누구누구다.’라고 하며 가장 후미는 총독 데라우치라고 하였는데 이날은 일본 사람들의 육군 기념회였다. …… 박물관에 가봤는데 원은 통화문 안쪽에 있었고 금수를 영치해 두었는데 모두 선왕의 공전이였다. 무릇 진기한 새들과 기이한 짐승들로 모두 들도 보도 못한 것들이었는데 그 수가 몇 천만 종일지 모를 정도였다. 이른바 鼠(즉 袋鼠로 캥거루를 말한다_필자주)라는 것이 있는데 송아지 만한 크기에 뒷다리의 높이가 3~4척으로 앞다리는 절반이었다. 호랑이·표범·곰·사자·멧돼지 따위들이 각기 철근에 묶여 있었고 가운데를 시렁으로 나뉘어 있었다. …… 또 滄海力士의

국내	<漢陽懷古(三絶)>, <漢社旅燈次寄李聚五(奎熙)回甲韻>, <松京(二絶)>, <再書中華政府感吟>, ※<歸後更題>
국외	<鴨綠江(三絶)>, <安東縣逢故國人盧致三(相益)致八(相稷)孟士幹(輔淳)李大衡(斗勳)共賦>, <見間島流民有感>, <遼東(五絶)>, <長春車中和贈山東文士張羽巨鵬鵬(二絶)>, <宿管城>, <俄國江東地逢金君子中(正默)寄贈>, <上新時待李啓道不至次其去年重九韻遣悵>, <又吟>, <餞春日登上新時前山獨坐述懷>, <留江東四朔而還還家日謾吟(三絶)>

17)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226쪽.

방망이와 같은 고물·고서·고화·궁궐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寶器까지 죄다 있었
는데 그 나머지의 온갖 종류들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¹⁸⁾

위의 인용문은 1월 28일 승례문에 도착한 그의 시선에 포착된 서울의
일면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즉 그 역시 일본인들의 대규모 행렬과 그
옆에서 훈장을 달고 그들과 함께 행진하는 매국인사, 그리고 ‘궁궐’에서
‘유희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이에 그는 시를 통해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게 된다.

萬戶千門耳目新, 만호 천문은 눈과 귀를 새롭게 하나
滿城非復舊時人. 성안에 가득한 것은 다시금 옛 사람들이 아니었다네.
勳章侯伯車中客, 훈장을 받은 후백들이 차 속의 객인데
盡是吾王寵遇臣. 모두 우리 왕께서 총애하던 신하였었지.¹⁹⁾

장석영은 1870년 20세 때, 과거 낙방 후 승례문을 나오며 “산이나
밭에서 풀을 캐는 늙은이가 차라리 나올 텐가.”라고 읊으며 고향에 돌아
와 학문에 전념했다.²⁰⁾ 즉 서울은 과거를 위한 공부, 즉 입신양명을 위
한 공부가 덧없음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도학의 세계를 궁구하게 만드는
시점이 되는 장소였다.²¹⁾ 이후 51세 되던 1901년 서울에 있던 백형 張
錫薰(1841~1923)을 방문하여 이 일대를 유람한 바 있던 장석영은 대
략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곳에 당도한다. 그는 1905년 이후 지
속적으로 일제에 대한 항거를 이어갔지만 결국 60세의 老儒의 몸으로

18) 「(一月)廿二日~廿三日」, 139쪽, “少焉日兵數百, 各執兵器, 馬上鼓吹作樂. 又有日男
女, 本國男女學徒, 累千萬人, 三三五五, 結隊而來, 又有官人數百, 日服佩勳章, 乘車而
相續, 市人指之曰: 是賣國賊某某也, 最後者總督寺內正毅云, 是日蓋日人陸軍紀念會.
(…中略…) 往觀博物園, 園在通化門內, 而竹置禽獸, 皆先王宮殿也. 凡珍禽奇獸, 所不
聞所不見者, 不知其幾千萬種, 而有所謂鼠者, 犢大小, 後脚高三四尺, 前脚半之, 虎豹
熊獅山猪之屬, 各以鐵索, 間架而別之. (…中略…) 又有古物如滄海力士椎之類, 古書
古畫, 及大內世傳寶器, 皆在焉, 其餘雜種, 不可名狀.”

19) 「(一月)廿四日」, 140쪽; 『晦堂集』卷2, <漢陽懷古(其一)>.

20) 『晦堂集』卷1. <下第出崇禮門>, “差可山田採草翁.”

21) 최은주, 앞의 논문, 248쪽.

망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移居를 준비하며 다시 찾은 한양은 위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과거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은 과거를 재현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변했고, 일제의 훈장을 받은 侯伯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 시절의 것들이 도리어 ‘전복’된 상황이었다. 이렇듯 그의 기행시의 출발은 망국에 대한 회한과 탄식, 울민과 비탄 가득한 정서가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비애의 표출은 곧 그의 기행이 갖는 의의와 목적을 더욱 엄중히 인지하게 만드는 내적 기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18~19세기 서울을 배경으로 창작된 다수의 한시 작품에는, 서울의 경승이나 명지를 유람하는 전통적 양식의 재현과 더불어 발전과 변영을 담은 이른바 ‘도회지의 면모’를 부각하는 작품들이 등장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²³⁾ 하지만 장석영의 시에서 드러난 것처럼, 20세기 들어 ‘도성’이라는 명칭조차 빼앗긴 서울은 한숨과 한탄의 공간이 되었다. 이에 서울에 머물던 그가 선택한 것은 ‘杜門不出’이었다. 홀로 서울에 머물며 동행할 동료들을 기다리던 그가 당시의 심정을 “말없이 홀로 앉아 하루 종일 문 닫고 있었다. 쓸쓸한 등불 끄뵙끔뵙 땃히고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암담한 것이었다. 이 때 문득 知友의 甲日이 떠오르지만 이제 천리 밖으로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창연해 졌다.²⁴⁾ 긴 여정을 앞두고 지우의 환갑을 상기하는 그의 내면은 온전히 축하의 뜻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그는 “멀리 떠나는 기러기 무슨 심정으로 북쪽 땅 날아가리오. 옛 벗 서로 그리워하다 남쪽 하늘로 떠나겠지요.”²⁵⁾라는 시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

22) 1905년 당시 이승희·이두훈과 함께 적신을 처단을 요구하는 「請斬五賊疏」를 작성하며 항일운동의 서막을 연 그는 1907년 칠곡 지역 국채보상운동 동참·1910년 은사금 거부 등으로 저항을 이어갔다.

23)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374쪽.

24) 「(一月)廿五日」, 140쪽, “獨座無聊, 敝門終日, 孤燈耿耿, 夜不成寐, 記得明日, 是吾友李聚五甲日也. 此老曾以其回甲韻, 眠余要和, 且請當日來會, 余許之, 今許千里之外, 思之悵然, 枕上搆和其韻, 翼朝書付郵遞.”

25) 「(一月)廿五日」, 140쪽; 『晦堂集』卷2, <漢社旅燈次寄李聚五(奎熙)回甲韻>, “旅雁河

했다. 가득한 수심과 상념, 벗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의 내심을 절절한 어조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행 과정에서, 그의 복잡다단한 감정이 가장 도드라지게 표출된 장소는 다름 아닌 ‘개성’이었다. 장석영 자신에게 개성은 대단히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먼저 개성은 조선이 개국 되자 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기 위해 “구차한 부귀의 온전함을 무엇에 쓰랴”라는 말과 함께 두문동에 은거하며 생을 마쳐, 후에 『杜門洞七十二賢錄』에 수록된 선조 張安世(?~?)의 의절이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했다.²⁶⁾ 또한 북청부사였던 부친 張時杓(1819~1894)가 1882년 “結錢을 유용했다.”²⁷⁾는 혐의로 慈山府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배행하며 이곳을 지났던 기억이 있다. 개성에 도착한 장석영에게는 부친과 함께 선조의 지조를 기억하며 면발치에서 제문을 통해 의절을 기렸던 3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⁸⁾ 이 모든 것을 등지고 국경이 있는 신의주로 향하는 그의 심정은 다음의 시에 반영되어 있다.

我祖忠貞尙有邨, 우리 선조의 충정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
 寥寥百世過孱孫. 쓸쓸히 百世 흘러 못난 후손 지나가누나.
 三韓片土今無地, 삼한의 조각 같은 강토 지금은 머물 땅조차 없으니
 何處靑山可杜門. 어느 곳 푸른 산에서야 두문이라도 가능할런가.²⁹⁾

종사의 붕괴와 세도의 쇠미, 그리고 국토마저 강탈된 상황에서 선조의

心飛北地, 故人相憶隔南天.” 참고로 본 壽詩는 성산 유림으로 이승희의 族弟인 聚五 李奎熙(?~?)에게 보낸 것이다.

26) 李行, 『騎牛集』, <杜門洞七十二賢錄>, “何用區區富貴全.” 참고로 이 책에서 장안세는 16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1880년 북청부사로 부임한 부친을 따라간 장석영은 장안세가 건립한 咸州의 萬世橋가 바로 선조 장안세의 치수 사업의 유적임을 듣게 된다. 이에 장석영은 당대의 업적과 조선 초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던 것을 떠올리며 「咸興樂民樓伏次先祖忠貞公韻」(『晦堂集』卷2)을 지은 바 있다.

27) 『高宗實錄』19, “고종 19년 4월 30일 조”

28) <一月三十日>, 140쪽, “記昔壬午(1882)間, 余陪親西遊, 行過此地, 爲文祭于橋上, 以寓千載之感.”

29) 위와 같음; 『晦堂集』卷2, <松京(其二)>.

절개를 상기해보는 그는 ‘유자’로서의 절의를 지키고자 멀리 떠나려는 의지를 다시금 깊이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에는 전원으로 혹은 향리로 退藏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나아가 이민족의 압제로 인해 온전히 守道에 전념할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流民이 된 자신의 복잡한 심사가 담겨 있다.³⁰⁾ 유도가 붕괴된 ‘패도’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그의 심정에 남아있는 부끄러움을 표출하며, ‘杜門’이라도 가능한 땅을 찾기 위해 떠나는 자신의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두문을 위해 떠나는 것이 곧 선조의 충정을 마주한 후손이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임을 힘겹게 표출한 것이다.

개성과 평양을 거쳐 그가 향하는 서간도는 비록 과거 “우리 단군의 옛 강역”이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이역의 영토였고³¹⁾, 또한 수 세기를 이어온 선현과 선영을 등지고 떠나려는 그의 심정은 대단히 착잡할 수밖에 없었다.³²⁾ 이렇듯, 그의 기행시의 출발은 망국 소식 이후, 줄곧 ‘살 곳을 찾아 떠날 것’을 모색했던 그의 절박한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³³⁾ 그리고 이것은 장석영 개인을 포함, 당시 국외로 몸을 피한 당대 유교 지성이 보여준 ‘유교적 저항’이라는 맥락과도 접맥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그는 평양을 지나 신의주를 거쳐 압록강 철교를 넘게 된다. 1912년 1월 19일(양력 3월 7일) 고향을 떠난 지 14일 차 되던 1913년 2월 3일(양력 3월 21일)의 일이었다.

30) 이택동, 앞의 논문, 51쪽.

31) 『遼左紀行』, 139쪽, “平壤之北, 鴨江之東, 有曰西間島, 地方數千里, 是檀君古疆, 而久爲廢郡, 滿人據而有之.” 참고로 본 문장은 서문에 해당된다.

32) 중국이라는 외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문물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견문을 넓히며 현실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려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정서는 결코 재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소자, 「조선후기 진보적 지식인의 중국방문과 교유」, 『명칭사연구』23, 명칭사학회, 2005, 28쪽.)

33) 『晦堂集』卷1, <聞亡國報述懷>, “將此微樞何處去”

Ⅲ. 만주 · 노령 체험의 시적 구현 양상과 詩情

상술한 것처럼, 그의 해외체험은 비단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노선은 과거 연행사들이 걸었던 ‘안동~북경’의 반대 방향인 ‘안동~蜜山’이었고, 나아가 다시 한 번 국경을 넘어 연해주 의 우수리스크(Ussuriysk, 宋皇嶺)일대 까지였다. 그가 이곳으로 향한 배경에는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강제 지배를 피해 서·북간도 · 만주 · 연해주 일대로 이주한 것과 연관된다.³⁴⁾ 장석영 스스로 “卜居를 위해 러 · 청 두 땅을 두루 살펴보는 것”³⁵⁾이 기행의 목적이었다고 밝힌 것처럼, 그의 유람은 결국 유럽 중심의 ‘해외 한인 공동체’ 구축과 연관된다. 또한 교통이 편하고 다량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산해관 인근이 아닌 북만주 및 러시아로 향하게 된 것은, 이제天涯知己가 되어 버린 한계 이승희 때문이었다. 그는 1908년 러시아로 떠나 길림성 蜜山 韓興洞³⁶⁾에서 한인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던 이승희를 만나 남은 생을 함께 할 장소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2월 3일 안동에 도착하여 고향에 되돌아 온 4월 27일까지, 그는 약 두 달간 중국 북만주 및 연해주 일대까지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를 통해 당시 그의 심정을 표출하였는데 작성된 시의 구현 양상과 詩情 및 志趣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34) 참고로 1912년 당시 북간도의 한인 인구는 2년 전에 비해 약 3만여 명이 증가한 143,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김주용, 「한인의 서간도, 북간도 이주와 정착: 1910년 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54, 재외한인학회, 2021, 79쪽.)

35) 「三月一日」, 146~147쪽. “蓋念吾行, 只爲去國而卜居也. 歷覽俄清兩地.”

36) 1908년 해삼위로 이주한 이승희는 1909년 蜜山 韓興洞에 자리했는데 이곳은 현재 黑龍江省 鷄西市(地級) 蜜山市(縣級) 白漁灣鎮 관내의 蜂蜜山 일대다.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약 4,400km²의 호수(중국 이름 興凱湖, 러시아에서는 한카호(Ханка湖)라 칭한다)를 경계로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다. 이승희는 1909년 이상 설의 위탁을 받고 해삼위에서 이곳을 둘러 본 뒤, 토지 45방(약 2,250무)을 사들였고 중국과 러시아 일대에 흩어진 한인들을 모아 100여 호를 이주시켰는데 이것이 한홍동의 시초였다. (한길로, 「白溪 李基仁의 「蜜山追憶記」 연구」, 『嶺南學』7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254쪽.)

1. ‘동지’들과의 수창시를 통한 決意와 志氣의 표출

한양에서 본 것처럼, 이제 국내는 매국인사들의 휘절을 성토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대는 상이했다. 이미 유인석·이승희와 같은 유럽계 중진들뿐만 아니라 의병 출신의 무관, 그리고 기독교·천도교계 계몽 인사들이 각자의 노선에서 항일투쟁을 모색하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 단동에 도착한 그는 뜻을 함께하는 유럽계 ‘동지’들을 만나며 그동안 내면에 담고만 있었던 깊은 속내와 지향들을 비로소 온전히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장석영이 이곳에 도착할 때의 심정과 목적, 여정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애써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장석영은 이들과 함께 酒會를 갖고 서로 수창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속내를 전한다.³⁷⁾

腐儒衰暮學天遊,	보잘 것 없는 선비 노쇠한 늘그막에 天遊를 배워
遼界茫茫眼欲流.	망망한 요동 땅에 눈 흘려 보려 한다네.
有地君逃薙白髮,	땅은 있으나 군왕 달아나 백발마저 깎아버렸더니
讀書誰教濟青邱.	책 읽어 靑丘를 가르치고 구제할 자 누구란 말인가. ³⁸⁾

그는 자신의 해외 기행을 온갖 외물의 구애와 세속적 욕망을 초탈하여 대자연 속에 어지러운 마음을 풀어내는 “天遊”로 규정했다.³⁹⁾ 그는 중화의 땅을 직접 밟고 뜻을 함께한 동지들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여행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다소나마 표출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

37) 그가 안동에 도착하여 먼저 만난 인사는 한주학의 동학이었던 弘窩 李斗勳을 비롯하여 기호 유럽 東田 孟補淳(1862~1933)과 김해 출신의 大訥 盧相益(1849~1941)·大訥 盧相益(1849-1941) 형제, 그리고 경성 출신의 壽春 李珉應(?~?) 등이었다.

38) 「二月四日」, 141쪽; 『晦堂集』卷2, <「安東縣逢故國人盧致三(相益)致八(相稷)孟士幹(輔淳)李大衡(斗勳)共賦」>. 단 『회당집』에는 “遼界”가 “遼薊”로 표기되어 있다.

39) 天遊는 『莊子』·〈外物〉의 “방 안에 공간이 없으면 머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다투게 되듯이, 마음속에 천유가 없으면 욕착이 서로 다투게 된다.”(室無空虛 則婦姑勃谿 心無天遊 則六鑿相攘)에서 유래했다. 통상 외물에 대한 사심 없이 자유자적하는 마음을 뜻한다.

도착한 그의 마음에는 다소 간의 실망도 포착된다. 아들 溥儀를 대신하여 섭정왕의 지위를 갖으며 사실상 청 왕조를 통치했던 載灃은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그 지위를 박탈당했고 그 권세도 원세개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직 유일한 중화의 ‘구제’를 보유하고 있는 존재는 본인과 함께 모인 ‘동지’들뿐이었다. 장석영은 시를 통해 당지의 현실에 다소 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지만 굳건히 중화의 실질과 정체를 보존하고 있는 주체, 또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요동 땅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동지’들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는 사실상 ‘중화의 맥’이 곧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天遊를 즐기는 장부의 마음을 함께 견지하자는 격려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를 화운한 이두훈이 “그대가 바로 중화 사대부일지니, 고향과 나라를 떠났다고 모름지기 근심하지 마오.”⁴⁰⁾라고 읊은 것처럼 이들은 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국을 떠난 절외와 의기를 잊지 말자는 각오를 詩心으로 전하고 있었다.

한편, ‘중화의 땅’ 중국 기행에 대한 기대는 풍경과 實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른바 ‘華人’을 직접 만나 필담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우의’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바람 또한 있었다. 연행을 앞두고 밤잠까지 설치며 ‘현지 문인들과의 대화에서 제기할 화제거리를 모색’⁴¹⁾했다는 연암의 예처럼, 장석영 역시 滿人과는 구별되는 화인과의 밀도 높은 대화와 소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온통 薙髮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巨儒 王陽明의 후손이라는 자도 학문이 부족하여 함께 필담을 나눌 수 없어 한탄이 나오는 상황이었다.⁴²⁾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기차’라는 공간에서 해결되기에 이른다. 1913년 북경을 찾은 조병택 · 김상욱 · 조정규 일행이

40) 「二月四日」, 141쪽, “會你中華士大夫, 離鄉去國不須愁.” 참고로 이 시는 이두훈의 문집 『弘窩集』卷2에 「渡鴨綠江宿安東旅館遇故國知舊盧大訥相益其弟小訥相稷孟東田輔淳李壽春敏應共賦」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이곳의 시제에는 장석영이 제외되어 있고 시어 “會你”는 “會作”로 기재되어 있다.

41) 박향란, 「燕行錄所載筆談의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8쪽.

42) 「二月四日」, 141쪽, “但但其文學似不贍, 不得以文字討論, 可恨.”

북경행 기차에서 漢人을 만나 필담을 나누는 것처럼, 그에게도 장시간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야만 ‘기차’라는 장소는 한·중 문인이 상호 조우하는 주요 창구가 되었다.⁴³⁾

2월 11일 奉天에서 長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장석영은 종래의 의관을 보유한 유일한 인사였기에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그의 이러한 외양은 한족 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내 서로 시를 주고받은 뒤 필담을 통한 대화가 진행된다. 장석영은 흑룡강성으로 떠나는 ‘關福謙’이라는 인물을 만나며 가벼운 필담을 나누었고 이어서 산동성 출신의 문인 ‘張鵬鷗(字 羽臣)’과도 조우한다. 그는 공교롭게도 같은 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 그가 시를 통해 장석영의 중국행을 꿰뚫어 보면서, “同形·同種·同氣”⁴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동질감’을 표하며 열린 태도를 보였기에 두 사람은 삼시간에 친밀한 관계로 발전된다.⁴⁵⁾ 이 사이 장석영은 장봉함의 시에 화답하며 자신의 금번 기행에 담긴 진의를 표출하기에 이른다.

男兒立志體天強 남아 뜻 세웠다면 천리의 굳셈을 체득해야 할지니
何必區區戀故鄉 어찌 반드시 구구히 고향을 그리워 하리오.
萬里行人聲氣感, 만리 행인의 소리와 기운 감응하셨나니
淸詩一讀一悲傷.⁴⁶⁾ 맑은 시 한 수 읽고 한번 가슴 아파 하노라.

이 시는 장봉함이 보낸 ‘고려(조선)가 강하지 못해 영웅지사들이 타향

43) 한길로, 「근대 한·중 문인의 필담에 나타난 ‘중화민국과 유도’ 인식의 일면」, 『인문과학』83, 성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188쪽.

44) 장봉함이 장석영에게 보낸 시는 다음과 같다. “可惜高麗不自強, 英雄志士走他鄉. 同形同種卽同氣, 狐兔相悲令人傷.” (「二月四日」, 143쪽)

45) 이에 두 사람은 좌석을 마주하며 반가움을 다하였고 함께 장춘의 여관에 묵기로 약속하게 된다. 이후 이 둘은 함께 청나라 식당에 가서 만찬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고 피곤도 잊은 채 밤늦도록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二月四日」, 143~144쪽, “遂相與同座盡歡, 約以同宿長春, 嘯時抵長春, 六百二十里, 下車, 與羽臣携手, 入清人客店. …… 觸跋而不知倦, 至夜深就寢.”)

46) 위와 같음, 143쪽; 『晦堂集』卷2, <長春車中和贈山東文士張羽臣(鵬鷗) (其一)>.

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시에 대한 화답으로 장석영은 그의韻을 받아 자신의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⁴⁷⁾ 자신의 중국행은 나라가 망국에 이르러 타향을 떠돌며 그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리를 더욱 강렬히 체득하여 立志를 완수하려는 儒子의 결의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곧 비록 조선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결코 그 땅의 문인들의 뜻은 오히려 더욱 굳세게 남았고, 더욱 큰 남아의 雄志를 펴고자 할 뿐임을 전하며 여전한 志氣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만리이역에서 자신의 소리와 기운이 통하는 벼를 만난 그의 마음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비통함이 쏟아져 내리고 만다. 장봉함은 장석영의 이러한 의지를 알고 또 장석영 역시 자신의 진의를 알아준 그에게 마음을 열며, 짧지만 여운이 짙은 우의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기행 과정에서 창작된 장석영의 수창시는 근대기 한국의 상황을 심분 반영하면서, 고국의 현실을 극복하는 동시에 유자의 이상을 완수하려는 당대 유림의 의지를 선명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점차 일상 깊숙이 침투해가는 한국을 벗어나, 오히려 ‘이역’이라는 장소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비록 대단히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위와 같은 ‘한·중’의 동지들이 있었기에 그는 잠시나마 심적 여유와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음을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 목도되는 이산의 실정과 倍感되는 客愁

사실 그의 移居의 모색은 전통적인 ‘중화주의’ 세계관과 깊게 연결된다. 그가 이승희와 연명하여 원세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은 천하가 夷狄이 될지언정, 中華가 夷狄이 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⁴⁸⁾라며 간곡히 호소한 것처럼, 궁극적 목표는 독립운동과 더불어 유교적 이상 및 세계관의 재현에 있었다. 하지만 민중들의 이민은 이상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

47) 정우락, 앞의 논문, 324쪽.

48) 「二月四日」, 141쪽, “擧天下寧爲夷狄, 中華不可以爲夷狄.”

을 위한 것으로, 이주민 중에는 변경지역인 평안도나 함경도의 농민뿐만 아니라 소작인으로 전락한 각지의 농민 상인·철도·광산 노동자까지 포함되었다.⁴⁹⁾ 강제병합 이후 일제의 토지수탈이 가속화되면서 ‘飢民’이 되어 버린 식민지 한인들의 해외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즉 유럽들에게 이곳이 故土이자 중화의 땅으로서 이상 실현을 위한 장소였다면, ‘삶’을 위해 찾아온 민중들에게 이곳은 생존을 위한 터전이라는 의미에 가까웠던 것이다.

장석영의 중국 방문 당시 이주민들의 ‘현실’은 매우 참담했다. 1913년 시간대를 방문한 조정규는 “홀어지고 헤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거나 망하는 일이 서로 이어져, 선왕의 적자들이 이역 땅의 땅강아지나 개미의 먹이가 되는” 한인들의 참상을 눈물을 머금으며 지켜보아야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⁵⁰⁾ 장석영의 시선에 포착된 한인들의 모습도 유사했다. 이에 그는 애통한 심사를 「西間島歌」를 지어 동포들에게 고하게 된다.

당기고 이끌고 온 이 천 리, 짐 지고 아이 업고 연이어 강 건너네.
 식량도 노자도 이미 다하여, 장정의 남자도 배를 채우지 못한다네.
 북풍에 차디찬 눈발 불어오니, 늙고 약한 이들 원숭이처럼 통곡하구나.
 손가락 굽혀가며 나갈 길 헤아려 보나, 아직도 천 리 길 아득하기만.
 관군이 싸워 봐도 연패하기 일쑤요, 도적 같은 梁山의 발호 많기만 하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나, 밭도 집도 이미 모두 팔았고,
 또 앞으로 나가려 하나, 배나 수레 삼마저 없도다.
 皇天께서 우리 신민 내셨는데, 곤역이 어찌 이리도 극심하던가?
 선왕께 제사 올리지 못했으니 백성들의 명도 나라와 함께 하구나.
 이 시기 나의 북으로 가는 길에는, 온 눈에 근심과 걱정만 가득할 뿐이구나.⁵¹⁾

49)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푸른길, 2011, 91쪽.

50) 盧相稷, 『西川集』卷5, 「墓碣銘」, “負戴至遼河者屢萬人, 此離顛沛, 死亡相繼, 公涕泣語同志曰: 忍令先王赤子爲殊邦螻蟻食乎!”

51) 「二月四日」, 141~142쪽; “提攜二千里, 渡江聯負襁. 資糧已告乏, 丁男不充腹. 北風吹寒雪, 老弱如猿哭. 屈指計前程, 尙有千里餘. 官軍戰敗績, 梁山竊發多. 更欲還故國, 田宅已盡賣. 又欲前進去, 舟車無錢買. 皇天生我民, 困厄胡此極. 先王不血食, 民命宜共國. 于時我北征, 滿目思忉忉.” (『晦堂集』卷2, 「見間島流民有感」)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어 땅과 일자리를 잃은 곤궁해진 농민들의 이주가 매우 고조되었다.⁵²⁾ 이런 배경에서 당시 민중들에게 서간도는 “산이 깊고 토지가 비옥한 別有天”, 즉 별천지로까지 인지되고 있었다.⁵³⁾ 20세기 초 중국 동북 일대로 이주한 우리 민중들은 “우리 가진 것 무엇이더냐, 호미와 바가지밖에 더 있다. 호미로 파고 바가지에 담아 만주벌 거친 땅에 벼씨 뿌리여. 어화~ 새살림 이룩해보세.”와 같은 민요를 부르며 많은 기대 속에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⁵⁴⁾

하지만 장석영은 이 시를 통해, 민중들의 기대 심리에 기대어 전해지는 간도 소식이 상당 부분 ‘풍문이며 허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본인이 직접 본 것을 한시라는 간결한 형식을 빌려 대단히 사실적이면서 직설적으로 그곳의 실정을 전하며, 처절한 간도 이민자들의 현실을 묘사했다.⁵⁵⁾ 그는 시를 통해 굶주리고 매서운 추위에 시달리는 동시에 부족한 자급에 허덕이면서도 도적 떼들의 노략질을 노출된, 실로 진퇴양난에 빠진 이민자들의 실정을 매우 찜찜하게 전했다.⁵⁶⁾ 나라의 운명처럼 갈 곳을 잃고 이역을 전전하던 민중들의 모습에서 그의 기행에는 ‘근심과 걱정, 빈민과 수심’ 역시 더욱 가득해졌음을 알 수 있다. 종묘사직과 조정을 바로 세워 유도를 회복하는 일이 곧 유리하고 표류하는 우리 민중들의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이 절절히 체감되지만 멀고 먼 기행처럼 고국의 독립 또한 迂遠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발길은 지우 이승희가 있는 북만주 蜜山으로 향했다. 이미 봉천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곳은 소위 갈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대단히 불안해졌다. 이는 신상의 안전마저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였기에 동행한李文汝는 여기에서 이만 돌아가려는 뜻을 전할 정도

52) 역사학연구소(편),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89쪽.

53) 「二月四日」, 141~142쪽, “山深土地肥, 云是別有天.”

54) 김택(주필)·김인철(부주필), 『길림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1994, 18쪽.

55) 정우락, 앞의 논문, 318쪽.

56) 이기동, 앞의 논문, 52쪽.

였다. 하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을 천명을 떠올리며 애써 외면한 채 길을 떠났고 상당 수준의 고난도 이미 감내할 심사였다.⁵⁷⁾ 실제로 하얼빈에 도착한 그는 “눈앞에 가득한 것은 러시아 사람과 만주 사람으로 우리나라 의상을 한 것은 오직 우리 들뿐이었다. 쓸쓸하고 고독하며 위태를 느껴도 의지할 곳 없었다.”라며 그때의 고독과 고립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⁵⁸⁾ 북만주를 넘어 노령까지 진입하면서 그 역시 이민자들이 겪었던 고독과 쓸쓸함, 그리고 불안을 은땀으로 겪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잠시 떠난 고국 생각은 더욱 간절해지고 황량한 이역을 누비는 심사는 더욱 처연해져 갔다.

良辰無伴獨登臨，	절기에 짝없어 홀로 산에 올라 보니
又是春光感客心。	다시금 이 봄빛에 길손의 심경 느껴지누나.
荒沙萬里家鄉遠，	황막한 사막 만 리에 고향은 멀기만 하고
芳草千山歲月深。	芳草 가득한 온 산엔 세월이 깊이 스며들었네.
落日迷茫人欲老，	해 떨어져 아득해지니 사람을 늙게 하고
殘花的歷鳥相吟。	시든 꽃들 역력하니 새들 서로 신음하누나.
思量萬事無佳計，	만사를 떠올리고 헤아려보나 좋은 계책 전무하여
行與韶華故國尋。 ⁵⁹⁾	봄 풍경과 더불어 거닐며 고국을 떠올릴뿐이네.

이승희를 만나기 위해 노령 江原에 온 장석영은 이승희의 아들 李基仁을 만나 구체적인 소식을 듣고 3월 1일 上新峙에 묵으며 이승희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이 사이 혹독한 추위 가득하고 황량한 그곳에도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餞春日, 즉 삼월 삼진날이 찾아왔다. 봄을 알리는 절

57) 「二月十一日」, 144쪽; “遂訪新市街金泰雲家, 是蓋我人, 而在奉天聞其名也. 韓人在農坪者皆會焉, 余問北間, 自此可往否? 皆曰未敢言也. 其言皆如奉天所聞, 文汝君聽畢, 大生慚慙, 苦要我還去. 余曰: 君可去矣. 哈爾濱雖云可畏, 吾以白直心去走, 初無一毫私意, 有甚可畏?” 즉 당시 북만주 지역 그리고 노령 일대는 언어의 문제는 기본이었고 필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무사히 도착할지 의문이었고, 언제 어느 순간 절도나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58) 「二月十四日」, 145쪽, “滿目皆是俄人滿人, 我國冠裳, 唯吾兩人而已, 零丁孤危, 無所依泊.”

59) 「二月四日」, 141~142쪽; 『晦堂集』卷2, 「餞春日登上新峙前山獨坐述懷」.

기에 홀로 산에 올라온 그의 뇌리에는 고향과 고국의 산천 생각이 절로 나고, 그의 마음은 ‘客心·落日·殘花’가 대변하듯 서럽고 쓸쓸하기만 하다. 이곳에는 생계를 위해 이역을 떠돌다 철도노동자가 되고자 花發浦, 즉 하바로프스키로 떠나는 한국 청년들이 있었고⁶⁰⁾, 또 동북삼성의 우리 유민들은 갖은 곤란을 겪다 만주 오랑캐에 탄압받고는 앞으로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였다.⁶¹⁾ 이러한 모든 참상을 실제 목격했던 그였기에 누구보다 그들을 구할 방도를 고심하고 또 고심해보지만, 만리 이역에 머문 고독한 이방인에 불과한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고국을 떠올리며 애달파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뿐이었다.

이렇듯 이산자들의 지난한 삶을 목도하고, 또 각종 고초를 겪으며 스산한 먼 이역을 홀로 누비던 그는 이역에 던져진 존재들의 심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지우었던 이승희와 천신만고 끝에 만나 “쇠해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두 사람은 곧장 이별을 맞게 된다.⁶²⁾ 남쪽 끝 영남과 북쪽 끝 천애만리의 땅 노령에서 만나, “아녀자처럼 슬피 하지 마시오.”라는 말과 함께 헤어져야 했던 통한의 감정 또한 ‘근대기 이산’의 맥락에 담긴 진한 別離와도 닿아있는 客愁의 이면이었다.⁶³⁾

3. 移去地 선정에 대한 모색과 고심

상술한 것처럼, 그가 서간도에 이어 북만주 및 노령까지 가게 된 것은 卜居를 검토하기 위한 기행이었고, 이승희를 만나 구체적인 장소를 토의하기 위함이었다.⁶⁴⁾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행은 곧 可居地에 대한 모색

60) 「三月一日」, 149쪽. “愚弼, 已於前月, 往花發浦, 爲鐵道勞動云.”

61) 「四月一日」, 152쪽. “且聞東三省之地, 我民之流離者, 捷遑困難, 見制於滿胡, 而將來不知其死所.”

62) 李承熙, <張舜華北遊吉林, 訪我于上新峙, 握手下淚, 歡叙數旬, 其還, 餞于紅土河, 悵驢一律>, 『韓溪遺稿』卷1, “萬里湖山一杖臨, 衰容相對更傷心.”

63) 「四月一日」, 153쪽. “十八日, 別剛公於千里湖頭, 一南一北, 涯角萬里, 余乘馬車, 且語剛公曰: 不須作兒女子悲.”

으로, 이는 기후·풍토·교통·문명 등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그에게는 한국 유교 전통의 계승 그리고 실제 향후 中華 문명의 명운까지를 고려한 결정이어야 했기에 매우 진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된 번민의 정서는 그의 기행시에도 짙은 흔적을 남겼다. 다음은 봉천에 머물며 북쪽으로의 기행을 준비하던 시기에 작성된 시이다.

曾懷曠漠九愁飛, 가슴 속 광막하여 온갖 근심 날아오르고
 我欲攜家此地移. 나는 가솔 이끌고 이 땅으로 이거하려 한다네.
 待得河清天定後, 황하 맑아지고 하늘의 뜻 정해진 다음을 기다리면
 子孫猶見漢官儀.⁶⁵⁾ 아들 손자들은 오히려 중화의 법도, 볼 수 있을런가.

봉천은 과거 삼학사의 고절이 깃든 장소로 그 역시 “천지에도 잊을 수 없는 병자년의 수치”와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⁶⁶⁾ 하지만 망국의 현실 속에서 이거를 앞둔 그의 심정은 위의 언급처럼 수심이 가득하다. 더욱이 당시 그의 눈에 비친 신해혁명의 이후의 중국의 현실은 더욱 불안하여 “하나 같이 서양의 제도를 쫓아 먼저 그 머리카락을 깎고 綱常을 잘라 내버려 중화를 오랑캐로 변모시킨” 상황이었다.⁶⁷⁾ 조선에 이어 중화의 땅에서 조차 이러한 참극이 지속됨을 한탄하면서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곳에 온 목적을 깊이 상기하며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보려 한다. 결국 위 시는 중화의 맥이 자신의 代

64) 위와 같음, 같은 쪽, “余曰: 吾今此來, 蓋爲卜居之西北兩間, 而其實亦欲一見大兄也.”

65) 「二月六日」, 142쪽, 『晦堂集』卷2, 「遼東(其五)」. 참고로 『漢官儀』는 東漢의 應劭가 지은 兩漢 시대의 典章과 制度등을 망라한 책인데, 시에서는 중국 고대의 법도와 의례의 의미로 해석된다.

66) 위의 책, 같은 쪽, 「遼東(其四)」, “東來鶴駕久西遊, 天地難忘丙子羞. 緬憶當年三學士, 精靈如在暮雲頭.”

67) 「三月一日」, 150쪽, “乃於改革之日, 一從西制, 先削其髮, 絕去綱常, 變中華而夷之.” 참고로 그는 3월 1일부터 上新時에 약 한 달간 머물며 이승희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 사이 그가 들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 들을 기록했다. 『요좌기행』 내 이후의 기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에서 멀절되는 것이 아닌 중화의 핵심을 보지하여 이를 전승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임이자 막중한 역할로 인지하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깊은 수심과 번민 속에서도 천리의 이치에 따라 그 날이 올 것임을 기다리면서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투신’함으로써 부끄러운 先儒가 되지 않으려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다. 즉 낙관적인 희망과 극복 의지를 상기하며 이를 다시금 강하게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밀산으로 향하는 길에 발견한 북만주의 모습은 그의 기대를 크게 꺾어 놓았다. 척박한 토지와 혹한의 추위도 문제였지만, 그곳의 풍습과 인물들의 면모는 내심 중화의 부흥을 기대했던 그의 마음에 일절 부합하지 못했다. 그곳은 ‘만주의 풍속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하여 애초에 절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⁶⁸⁾ 이런 배경에서 그는, 북만주와 러시아 일대는 이거의 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점차 근접하게 된다. 눈바람이 연일 불고, 우박이 계속 이어져 평지의 수심이 數尺에 이른 어느 날, 홀로 江原의 객창에 머문 그는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는 고뇌의 순간을 다음의 시를 통해 밝혔다.

風雨蕭蕭夜未央，	비바람 쓸쓸한데 밤은 반도 지나지 않아
天涯愁思正茫茫，	천애의 우수와 시름 정히 망망하구나.
枕上翩翩春夢裏，	베개 위에서 춘몽 속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不知身在北胡方。 ⁶⁹⁾	이 몸 북쪽 오랑캐 땅에 있음을 잊어버렸노라.

위 시는 비 내리는 이역에 홀로 머문 그의 고뇌와 고심, 특히 북만주 및 러시아 접경지대가 이거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내적 번뇌를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지의 날씨에 매우 을씨년스러웠고 풍속 역시 儒道의 재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수심만 늘어나는 상황

68) 위와 같음, 148쪽. “滿俗蠢蠢，初無禮度。”

69) 위와 같음, 150쪽, “風雪連日，繼以雨雹，平地水深數尺，獨宿羈窓戀國懷人，果難排遣漫吟一絕。” 참고로 이 시는 『晦堂集』卷2에 <又吟>으로 수록되었다.

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국내와의 거리가 매우 멀고, 나아가 러시아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본인이 겪은 곤란과 신변 안전의 문제까지 고려해보면 더 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가 본 이곳 한인촌의 생활상도 무례함이 지나쳤고 더욱이 이곳은 기독교인이 많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었다.⁷⁰⁾ 이러한 고민과 고뇌를 통해 그가 이거할 중화의 땅은 “遼陽과 같은 곳이나 산해관 북쪽” 일대로 잠정 결론 내리기에 이른다.⁷¹⁾ 이곳은 春夢을 기대할 수 없는 명백한 北胡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4월 28일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간도를 경유하여 북만주와 노령 일대까지 유람하며 겪은 곤액은 “당나라 현장이 겪은 팔십일難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했었다.⁷²⁾ 하지만 卜居를 모색하고 또 이승회를 만나려던 목적은 일정부분 달성하였다. 하지만 긴 기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긴 그의 시에서도 이에 대한 그의 고심은 이어졌다.

靈均返楚欲奚爲,	초나라로 돌아온 굴원은 무엇을 하려 했고
遼野幼安可與期.	요동 들관의 유안은 더불어 기약할 수 있었네.
將此苦心誘後輩,	장차 이 고심으로 후배들을 인도하여
誓令吾道不全迷. ⁷³⁾	우리 道 온통 혼미하지 않음을誓令하게 하려네.

70) 서동일, 앞의 논문(2014), 354쪽.

71) 이승회를 만나기에 앞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진실로 집을 요양 등이나 산해관 이북에 둘 수 있다면, 매우 괜찮을 것 같다. 중주의 사대부들이 후세에 비록 쇠퇴할지라도 아직 중화의 백성됨을 잃지 않을 것이고 고국과 또한 거리가 멀지 않아 차 한 번에 강을 건널 수 있어 선영의 분묘나 친척들을 뵈는 것이 하루 저녁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행차에 이승회 공을 만나면 이런 뜻을 말씀드려 손을 잡고 요좌로 나오려고 한다.”(「三月一日」, 147쪽, “苟可以置家於遼陽等處, 或山海關以北, 則大可. 爲中州士大夫, 後世雖衰, 尙不失爲中華之民, 故國又不甚遠, 一車渡江, 墳墓親戚, 若可以朝暮之也. 此行如見剛公, 庶可以說與此意, 而携手出遼左矣.”)

72) 「四月廿七日」, 155쪽, “但老年孤行, 喫得千般困厄, 雖唐玄藏之八十一難, 無以過也.”

73) 위와 같음, 같은 쪽; 『晦堂集』卷2, <留江東四朔而還還家日謾吟(其三)>. 참고로 본문의 靈均은 굴원의 字이다.

이 시는 해외체험을 마친 그의 내면을 압축적으로 총결하면서 그의 고심이 결심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나라의 굴원과 위나라의 管寧(158~241)⁷⁴⁾은 모두 난세 중의 난세를 살아간 인물인데, 장석영은 이 두 인물을 대비하며 해외체험 이후 자신이 갈 길을 시를 통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초나라로 돌아가 汨羅水(현 호남성 동북부)에 몸을 던졌던 굴원의 길이 아닌, 관녕처럼 요동으로 몸을 피해 후학을 양성하고 백성들을 감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행 이후 그가 택한 결정은 앞선 시기 유인석이 언급했던 ‘去之守舊’와 연결된다. 즉 그의 기행은 과거 유교적 대의명분 그리고 유도의 보존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선유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해외로 떠나 유학의 보존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던 老儒의 강력한 삶의 의지가 담겨있었던 것이다.

결국 『요좌기행』의 기술이 매우 정밀하고도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고 또 그 기행시의 서정이 대단히 곡진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간절하고도 전전공공한 심사와 연결된다. 이후 그의 시선과 관심은 요동으로 향했고 장석영이 다녀간 이듬해인 1913년 5월, 이승희는 밀산에서 요동에 해당되는 압록강 부근의 안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승희의 행보는 본격적인 공교운동으로 나아갔고, 북경 공교회에 직접 방문하여 지회 승인을 받았다. 동시에 장석영은 우회적으로 이를 지원하면서 1914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 공교회 간부 이문치(李文治)를 만나 교류를 이어갔다. 즉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은 장석영의 만주 방문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의 중국행은 한·중 공교회 합작의 ‘시발점’이자 한주학파의 독립운동 근거지가 안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기행시는 이 시발과 전환의 이면에 자

74) 幼安은 管寧의 자이다. 그는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遼東으로 피했다. 그곳에서 詩書를 강론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피난 온 백성들을 教化시키며 명성을 얻었다. 나무 길상에 50년 동안 꿰어앉을 뿐 다리를 퍼지 않았는데, 훗날 그 길상 위 무릎이 닿은 지점이 모두 뚫어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더불어 함께 공부하던 지우가 고관대작의 수레가 지나가자 책을 덮는 것을 보고 함께 쓰던 방식을 갈라 절교했다는 “管寧割席”이라는 일화도 전한다. (『世說新語』·「德行」)

리한 유럽들의 고뇌와 지향, 비애와 극복의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할 수 있다.

IV. 결론

장석영은 퇴계학통을 계승한 이진상의 학설을 더욱 체계화하고 충실히 계승하는 동시에 조선 성리설의 도통을 墨守하는데 진력하는, 전형적인 성리학자의 길을 걸었다. 다만 그것이 현실 세계와 분리된 다소 공허한 이론에 머물거나 유리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일관했다. 1912년 음력 1월 맹동의 추위를 뚫고 홀연히 기차에 오른 62세의 老儒였던 그는, 압록강을 넘어 끝없이 펼쳐진 요동 별판의 산천과 풍토 그리고 각 장소의 특징과 향후의 가능성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들에는 유자로서의 사명감과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역력히 스며있었다.

약 100여 일의 기간동안 15,000리를 돌아본 여정을 통해 그는 요동 지역을 새로운 공동체로 낙점하며, 대청제국의 멸망 이후 ‘중화 없는 중화’의 공백 상태를 지방 유럽 공동체가 간직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직접 메우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사실 당시는 동지들의 중국 이주가 이어지고 있었고 동시에 은사금과 같은 일체의 회유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었기에, 이거에 대한 모색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시대 배경도 있었다. 즉 당시는 각종 유교 어용 단체들이 결성되어 유도를 빙자하여 강제 병합을 정당화하고 있었고, 일체의 훈장을 단 과거 고관들이 거리를 확보하는 현실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해외 이주 모색은, 유교 전통을 계승하여 펼쳐 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인지한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시를 포함한 그의 기록은, ‘한국의 이민사와 유럽계 독립운동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유의미한 서술이다. 동시에 ‘근대 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른바 연행길을 벗어난 근대기 중

국(한문)기행문학의 면모를 생생히 담으면서, 한문학 창작 공간과 양상을 심분 확장시켰다. 이역에서 창작된 수창시가 중국 문인과 더불어 ‘고국’의 문인들이었다는 점 역시 새로운 국면이었다. 즉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창작된 그 시들에는 조국에 대한 통한과 함께 독립의지를 담은 意氣를 담고 있었는데, 이는 비록 이역이라는 공간이었지만 시를 통한 의리구현을 강조해 온 한국 한시 전통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男負女戴로 압록강을 건넌 이민자들의 참상을 목격하며 망국이라는 통한의 현실과 함께 ‘민족 이산’의 비극을 동시에 드러낸 면모는 기존의 기행문학과 함께 ‘이산문학’의 일면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문학은 ‘한·중’과 ‘중·러’의 경계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던 한인들을 바라보며 나타난 다양한 내적 갈등과 자기 정체성의 모색, 또 고국에 대한 깊은 향수까지를 모두 담고 있었다. 즉 그의 작품은 근대기 한문학의 특징적 국면들을 대단히 잘 반영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정통 성리학자로서 그가 제시한 여러 한계를 재론하기보다 그의 문학이 담고 있는 사적 맥락과 당대 유럽의 고뇌와 갈등이 투영된 ‘진정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다만 동시기 중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했던 유럽들과의 비교 연구 및 기행 이후 시 세계의 특징과 내면세계의 변화 등을 진술하지 못한 것은 그 한계로 인정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遼左紀行』, 『晦堂集』, 『韓溪遺稿』, 『勉菴集』, 『毅菴集』, 『西川集』, 『高宗實錄』.
김태준, 『여행과 한국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역사학연구소(편),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푸른길, 2011.
홍순민, 『우리 공궤 이야기』, 청년사, 1999.
홍원식(외 공저), 『근대 시기 낙중학, 주문팔현과 한주학파의 전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김윤조, 「회당 장석영 산문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김주용, 「한인의 서간도, 북간도 이주와 정착: 1910년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54, 재외한인학회, 2021.
안순태, 「燕行詩의 양식적 특성에 대하여」, 『국문학연구』44, 국문학회, 2021.
서동일, 「1910년대 한중 유럽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77,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2013.
서동일, 「1910년 전반기 장석영의 외부세계 경험과 유교인식」, 『한국인물사연구』22,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윤병석, 「요좌기행」·「요좌기행 해설」, 『사학지』8, 단국사학회, 1974.
이택동, 「회당 장석영론」,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정우락 「『요좌기행』을 통해 본 장석영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최소자, 「조선후기 진보적 지식인의 중국방문과 교류」, 『명청사연구』23, 명청사학회, 2005.
최은주, 「회당 장석영의 삶의 궤적에 따른 한시 창작 양상의 특징」,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한길로, 「白溪 李基仁의 「蜜山追憶記」 연구」, 『嶺南學』7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한길로, 「근대 한·중 문인의 필답에 나타난 ‘중화민국과 유도’ 인식의 일면」, 『인문과학』83, 성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황지원, 「회당 장석영의 철학과 한주학 계승」, 『한국학논집』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Abstract

The Aspects of Poetic Realization of Hoedang Jang Seok-young's Manchuria and Far East Russia Travel Poems.

- Focusing on 『遼左紀行(Yojoagihaeng)』 -

Han, Gil-ro

Hoedang Jang Seok-young is a person who inherited the studies of Hanju Lee Jin-sang together with Lee Seung-hee and Kwak Jong-seok. He is also a modern Confucian scholar and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He traveled to China in 1912 for the liberation of his country and the revival of Confucianism, which in fact meant immigration. In other words, for him, China was not just a travel destination, but a base for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and preservation of Confucianism. His destination was Milsan, North Manchuria, where his colleague is located, but he even visited Far East Russia. His travel poems were full of sadness and lamentation about the reality of his country, and he met his comrades and expressed his inner psychology. At the same time, his poems also had concerns and serious reflection. about the place of migration. Finally, it also reflects the difficult pain and lifestyle of the Korean diaspora. In conclusion, his literary work contains new contents and themes of Modern Sino-Korean Literature, so it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keywords :

Jang Seok-young, 『Yojoagihaeng』, 『Hoedang-jip』, Manchuria and Russian Far East, Travel Poems